

인간에 대한 배려

[지난호이어 계속] 원주민이었던 아이누족 언어로 풍성한 삼림과 풍요로운 자연을 뜻한다는 “이도무(idom)리조트” 내의 통나무 코테이지가 필자를 한국의 폭서로부터 며칠간을 구해준 일본 홋가 이도의 숙소였다. 위도상으로도 북쪽에 위치하였지만 어윈 그대로 풍성한 삼림이 풍요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어우러진 숲 속의 휴식처는 문자 그대로 자상의 낙원이나 다름없는 환경이었다. 매년 한번씩은 업무관계로 일본을 다녀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보고 느끼고 배우는 바가 많아, 가끔씩 본 지면을 통하여 소개하고는 했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몇 가지 앞서가는 일본의 화장실 변화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글. 조의현
산본연구소 대표/원화합이사

1) 장애인에 대한 배려

“치도세 국제공항”에서 보게 된 것인데(사진①), 일반적인 장애인 화장실의 기본적인시설 외에 친절한 안내문이 하나 더 첨부 되어 있었다.

“이 화장실은 눈이 부자유스럽거나,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에게 사용이 편리하도록 음성으로 세정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화장실을 들어서면 음성으로 화장실 이용 방법이 자동적으로 설명되고 있었다.

2) 여성에 대한 배려

여성이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화장실 이용 시간이 긴 것은 양의동서를 불문하고 똑같은 현상이겠지만,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눈에 띄었다.

여성용 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이 인접해 있었는데 여성용 입구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사진②)이 게시되어 있었다.

“여성 고객 여러분에게 인접 장애자용 화장실은 장애자가 사용 우선이나 일반 화장실이 혼잡할 때에는 이용하여 주십시오.”

3)아기에 대한 배려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큰 공중 화장실 - 특히 백화점 등 - 에는 여성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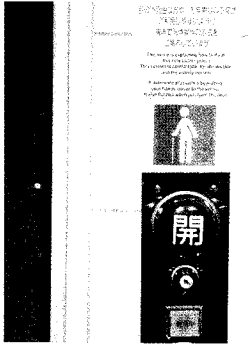


사진1 - 음성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치도세 공항의 장애인 화장실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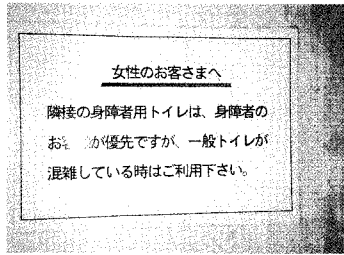


사진2 - 여성 이용자에 대한 배려 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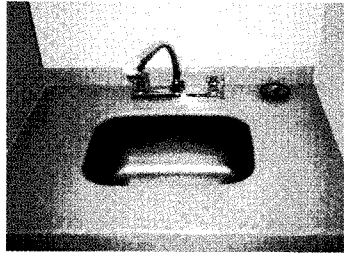


사진3 - 어린이용 특수 세면기



사진4 - 혼잡시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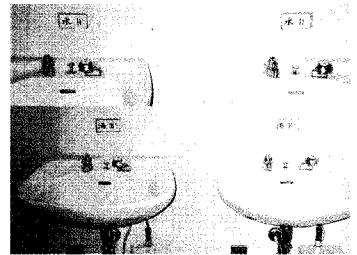


사진5 - 세면기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가 표시되어 있다.

안에 아기 기저귀 교환대나 아기씨터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지만 치도세 공항에서 보게 된 모유실은 기기·비품들 하나하나가 안전성면에서 신경을 쓰고 있었으며 색깔의 조화면에서도 평온한 느낌을 갖도록 되어 있었다.

특히 필자가 남성인 탓으로 여성 화장실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대·소변 후 아기 하체(궁둥이 부분까지)를 씻을 수 있도록 약간 깊게 물을 보관할 수 있는 특수세면대(사진③)를 보게 되었다. 무척 편리하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다.

4) 일반 이용자에 대한 배려, 하나

서울 반포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의 경우를 보아도 일정 간격으로 화장실이 잘 정비되어 있지만 유독 이용이 번잡한 곳이 있다. 우선 가까운 곳을 선호하게 되므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로 비슷한 경우가 공항에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조그만 안내판(사진④)이 붙어 있었다. "이용객 여러분께 당 화장실이 혼잡하게 되면 죄송하오나 화살표 방향의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는 아래 부분에 화살표로 인접 화장실을 표시하고 있었다. 작은 배려였지만 가슴에 와 닿는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

5) 일반 이용자에 대한 배려, 둘

운동시설(골프장)내의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곳은 골프화를 신은 체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게 되므로 고무 재질로 된 바닥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세면기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를 2분하여 취향에 따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경우(사진⑤)도 있었다.

- 다음호에 계속 -